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5월 15일(수)

윤석열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참석

-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 -
-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울 것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15, 수)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동했습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 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진석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이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